Econ Snapshot

Economy | 2026.2.19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미국 1월 FOMC 의사록: 엇갈리는 내부 의견

인플레이션: 2% 물가 목표를 향해 점차 낮아지겠으나, 속도와 시점의 불확실성 높아

- 참가자들은 대체로 관세가 핵심 상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부터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. 일부 참가자들은 주거비의 지속적 둔화가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
- 몇몇 참가자들은 기술 발전과 연관된 생산성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. 기업들이 공정을 자동화하고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활용 →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 전가하거나 마진을 줄일 필요성 약화
- 다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2%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예상보다 더 느리고 불규칙할 수 있다고 경고,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위험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함
- 이들 중 일부는 기업들이 비용 압력에 대응해 올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인용. 몇몇 참가자들은 수요 압력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% 목표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 제기

노동시장: 안정화 조짐 보이나 하방 리스크도 염두에 둘 필요

- 참가자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이 올해 안정화된 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, 노동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계속 언급
- 대다수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,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판단
-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구인 가능성에 대한 설문 지표나 경제적 사유로 파트타임 근로를 하는 비중과 같은 일부 지표는 노동시장 여건의 추가 약화를 여전히 시사한다고 지적
-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.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채용이 적은 환경에서 노동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경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, 혹은 고용 증가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

통화정책 전망: 위원 별로 각기 다른 견해 제시

- 몇몇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
- 일부 참가자들은 유입되는 데이터를 평가하는 동안 정책금리를 한동안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. 이들 중 다수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확실히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는 명확한 조짐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
- 몇몇 참가자들은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가 양방향(two-sided) 설명을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.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

총평: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전까지 금리 동결 우위

- 1월 FOMC 의사록은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위험에 무게를 둠
-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금리 유지 또는 인하 쪽으로 쏠려 있으나, 몇몇 위원들이 금리 결정과 관련해 양방향(two-sided) 설명을 포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1월 FOMC 의사록은 매파적으로 인식. 이는 당장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,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필요
- 다행히 미국 1월 CPI가 전년비 2.4%로 예상치(2.5%)와 전월치(12월 2.7%)를 하회하며 안정되고 있어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는 상황.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의 경직성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제어하는 요인이 될 것
- 연준 내부에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음.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 신호가 확인될 때 가능할 전망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